"반세계화 추세 막으려면, 적절한 거시정책과 분배정책 함께 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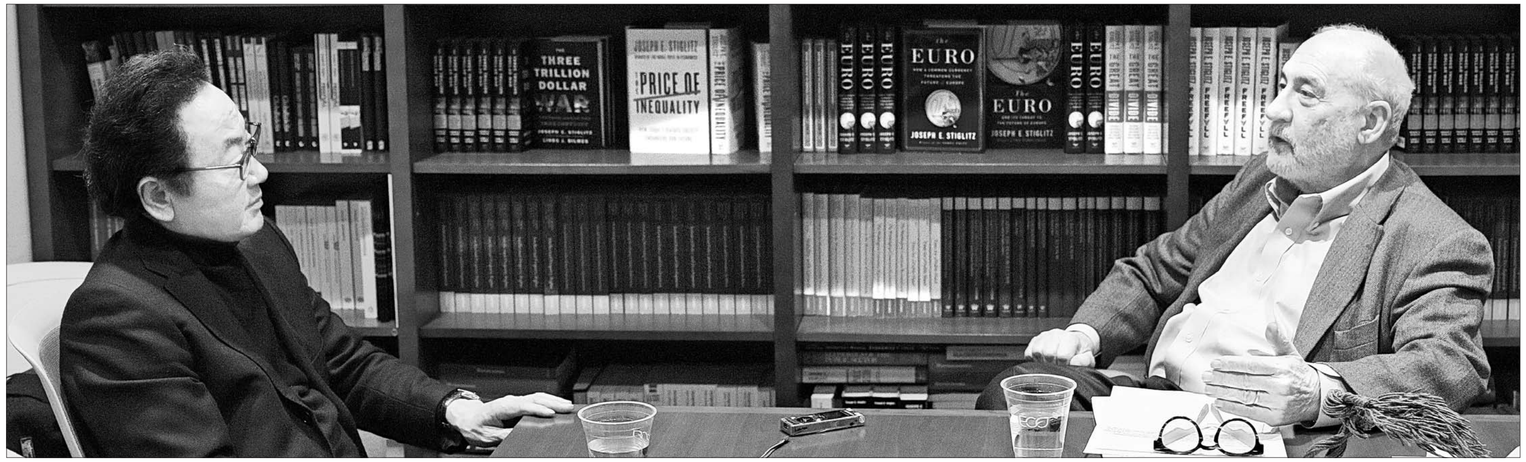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만 나와" 반 트럼프 선봉

〈잘못된 정책〉 〈잘못된 결과〉

Joseph E. Stiglitz

- 국제경제학회(IEA) 회장(2011~2014)
- 컬럼비아대 경영국제관계학 교수
- 노벨 경제학상 수상(2001)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부총재(1997~2000)
-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1995~97)
- 예일·스탠퍼드·듀크·프린스턴·옥스퍼드대 교수 역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사진) 교수는 무역자유화와 세계화 정책은 적절한 거시정책과 분배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세계화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는 양극화와 빈곤 문제는 기술 변화 등 다른 요인도 있는데 세계화가 지나치게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불평등 연구의 대가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를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시 컬럼비아대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경영국제관계학 교수(오른쪽)가 21일(현지시간) 뉴욕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본지 사공일 고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신케인스학파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서도 정부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뉴욕=안정규 JTBC 기자

'불평등' 연구의 대가 스티글리츠는

한국에 긴축 요구한 IMF에 반대

세계은행 부총재직 밀려나기도

조셉 스티글리츠(74)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대표적 지식인이다. 지난 20일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실린 기고문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트럼프 시대에 생존하려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저항하라"고 일갈했다. '저항(resist)'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힐 정도로 트럼프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미국이 사법적 독립을 거부하고, 딸의 사업을 홍보하는 대통령을 갖는 게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의 신케인스학파로,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대가다.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인 정보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점을 규명해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국내에는 저서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사진)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는 배경 또한 트럼프의 정책이 불평등의 근원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규모 감세와 정부 적자 해소를 통해 인프라 투자비와 방위비를 대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몇몇 부유층의 배만 불릴 뿐 트럼프를 찍었던 미 중부 러스트벨트의 성난 낙오자들을 달래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티글리츠는 "분배 측면에서 최하위계층이 받는 실질임금(물가 상승률 고려) 수준은 약 60년 전과 동일하다"며 "트럼프가 '미국 경제는 썩었다'고 외칠 때 대중이 열광적으로 반응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부유층과 기업에 혜택을 주면 낙수효과가 일어나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한 기고문에서 "쓰레기(잘못된 정책)를 넣으면 쓰레기(잘못된 결과)만 나온다"고 강하게 표현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만이 추락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기술혁신이 소득불균형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공정한 분배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지식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학습하는 사회'에서 답을 찾고 있다. 아프리카 시골에 사는 아이들에게 대도시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보다 아프리카 시골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서 무인자동차에 일자리를 잃은 택시운전사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보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게 현명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1997년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를 지낼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와 재정긴축 처방이 한국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며 강력히 반대하다 결국 2000년 세계은행을 떠나야 했다. 사공 고문과는 그때부터 친분을 유지해오고 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조셉 스티글리츠=얼마 전에 쿠웨이트·두바이·콜롬비아·멕시코 등을 방문했다. 세계가 얼마나 격동 속에 있는지, 미국 정치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다.

▶사공일=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 달은 '불확실성'과 '혼란'이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 같나.

▶스티글리츠=적어도 앞으로 한 달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들의 의회 인준이 지연되고 실제 입법안을 만들어야 할 차관·차관보 등 장관 보좌진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사공=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공화당이 잘 협조해 줄 것으로 보나.

▶스티글리츠=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목적지에 기반한 법인세인 국경조정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난다. 월마트 등 수입 관련 회사가 많은 주의 상원의원들이 찬성하겠나. 공화당이 2석 우위인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인 관세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 할 것이고 이는 다시 정치적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설사 분쟁에서 트럼프가 이겨내더라도 다른 정책 추진의 모멘텀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공=트럼프 대통령은 유세기간 중 공하하게만 들리거나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던 공약마저 이행하고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물론 법이 아닌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서다.

▶스티글리츠=행정명령으로 모든 정책을 이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만이 곧 이행될 수 있었으나 그것마저 법원이 중지시킨 상태다. 정상적 상황하에서라면 행정명령이 아니라 해당 부처가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가 약속한 금융규제 관련법(도드-프랭크법)의 대폭 완화의 경우도 행정명령만으로는 아무것도 이행할 수 없다. 재무부 장관은 이제 임명됐지만 고위 정책담당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서다.

▶사공=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행정명령과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

▶스티글리츠=그렇다. 그러나 TPP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더라도 통과될 확률은 50% 미만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트럼프의 탈퇴 결정 자체는 중요한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공=당신은 처음부터 TPP에는 반대했지 않았나. 물론 트럼프와는 다른 이유에서였지만….

▶스티글리츠=TPP의 투자 관련 조항과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등의 문제 때문에 반대했다. TPP가 지난 정부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많은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불만이었다. 내가 TPP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TPP가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공=그러나 TPP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다는 것 자체가 지정학적 측면의 상징성이 아주 크다. 미국이 경제와 지정학적 양측면에서 아시아로의 회귀를 계속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스티글리츠=그 점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는 실질적인 행동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은 수사(rhetoric)에 불과했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을 외치는 것에 실망했다. 물론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미국을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국의 국익(enlightened self-interest)을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중동이나 아시아 그리고 북한 문제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뿐 아니라 미국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단순한 이타주의적(altruistic) 동기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다. 미국의 이해와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근시안적 이해타산에서 나온 것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사공=트럼프가 국제관계도 제로섬 게임으로 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스티글리츠=그렇다. 모든 것을 제로섬으로 본 결과 네거티브섬(negative sum)을 초래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 장기적인 가치에 기초한 협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희생도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다.

▶사공=무역협정 문제로 되돌아와서 ＼ 환율조작 관련 조항을 무역협정에 포함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스티글리츠=환율조작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다. 미국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환율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중국의 통화는 지난 2년간 평가절상되고 있지 않나. 환율조작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그래서 환율조작 금지조항을 무역협정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사공=무역과 관련된 환율 문제는 WTO 차원에서 IMF와 협조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WTO의 추진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화제를 돌려보자. 당신은 지난 수년간 세계화의 부작용을 정책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도 대다수 경제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세계화와 무역자유화를 거시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분배와 불평등 조장 문제 등은 등한시해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세계화에서 소외되고 손해를 본 부문과 근로자들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스티글리츠=맞다. 무역자유화와 세계화 정책은 적절한 분배 정책과 함께 수출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등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기술 변화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초래된 양극화와 소득분배 문제도 세계화의 문제로 매도될 수 있다. 이런 것에 관한 『세계화의 새로운 불만(Globalization and Its New Discontents)』이란 나의 새로운 책이 곧 출판된 예정이다.

▶사공=미국 사회 일각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소위 트럼프노믹스가 결국 소득분배와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트럼프를 당선시켜준 핵심 지지층을 실망시키게 돼 정치적 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스티글리츠=트럼프노믹스가 트럼프를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점은 아이러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정치력이 있는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취임 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는 국민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지 않나.

국제관계선 자기희생도 필요한데

트럼프는 제로섬 게임으로만 봐

'미국 우선' 내세운 취임사에 실망

환율조작, 판단하기 정말 어려워

무역협정에 넣는 건 문제 많아

미국이 리더십 발휘하지 않으면

세계는 건전한 다극체제로 전환

한국 등 '정직한 브로커' 역할해야

혁신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

조세정책 등 미리 조치해둘 필요

▶사공=미국의 정치 체제는 행정·입법·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잘 갖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스티글리츠=그럴 것으로 볼 수 있다. 근소한 차이지만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의 전통적 가치는 트럼프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개방과 무역에 한층 더 진취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재정 적자와 조세구조 변화에도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나는 공화당 다수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본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공화당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사법부도 견제 역할을 적절히 해나갈 것이다.

▶사공=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미래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4년 후 미국과 세계 경제는 어떤 모습일 것으로 보나.

▶스티글리츠=현재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지금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국제적으로는 과거와 같이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주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지정학적 체제의 약화에 따른 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나라가 상호 협조하에 어느 한 나라 중심이 아닌 다극(multipolar)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사공=그러한 측면에서 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같은 다자 포럼이 잘 활용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리고 초강대국이 아닌 한국 같은 나라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스티글리츠=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캐나다와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나라들이 국제 포럼에서 '정직한 브로커(honest broker)'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사공=끝으로 지금까지의 화두와는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눈부신 기술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데도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의 생산성 향상이 통계상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보나. 기존 추계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

▶스티글리츠=추계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현재로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가치를 정확히 추계하기 힘들다. 혁신에 따른 부가가치의 추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우리 사회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 특히 구조적 실업 문제 가능성에 대한 조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미리부터 해둬야 한다고 본다.

정리=**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중심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 공모직위 : 이사장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2. 응모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
  ※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참조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3.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10매 이내)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5매 이내)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대학·대학원), 학위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기타 실적(학술지 논문게재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추진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일시 ·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2. 27.(월) ~ 3. 6.(월)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우)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구미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지원부 (8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기 타

- 지원서 양식 및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kead.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지원부 (☎ 031-728-7329, 7255)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부천시 공고 제2017- 475호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 공고

부천시가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에 따라 부천시 오정동 1-2번지 일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27.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
나. 사업 시행자 : 부천시장
다. 사업 위치 : 부천시 오정동 1-2번지 일원
라. 사업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2. 보상대상 토지물건조서 내용
가.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 권리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기간 : 2017. 2. 27. ~ 2017. 3. 13. (14일간)
※ 열람 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 · 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장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 (춘의동, 부천시청원 2층)
다. 열람 방법 :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라.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이의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시기 : 2017년 5월 예정으로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단, 보상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
나. 보상가격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다. 보상금 지급방법 : 부천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전액 현금으로 지급
※ 보상금 총액이 예산보다 초과될 시 우선적으로 협의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족분은 향후 예산편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5. 보상 절차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추천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개별 협의
– 협의 시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가 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법원) → 소유권이전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6. 기 타
가.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추천서는 개별 통지 시 첨부
나. 보상대상 편입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불법)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개별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 합니다.
라. 주소(거소) 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원조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공원조성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전혜숙	전화번호	032-625-3485
				FAX	032-625-3489

중앙일보 와 함께하는 크루즈여행 제 29탄

발틱해 7개국 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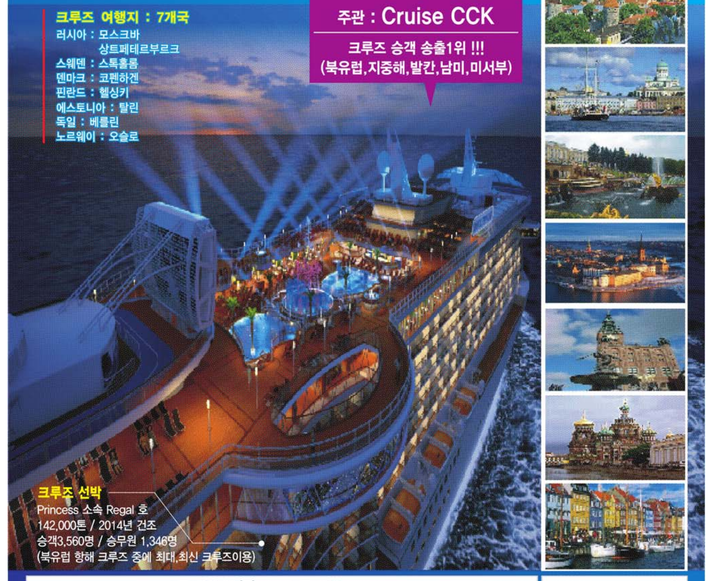
크루즈 기간 (13일)
1차 2017년 4월29일 ~ 5월11일(현재 04명 잔여석12명)
2차 2017년 5월10일 ~ 5월22일(현재 06명 잔여석10명)
3차 2017년 5월21일 ~ 6월02일(현재 11명 잔여석07명)
4차 2017년 6월01일 ~ 6월13일(현재 13명 잔여석 07명)
5차 2017년 6월20일 ~ 7월05일(현재 09명 잔여석 11명)
※ 출발 날짜별로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출발별로 12명 이상 모집시 크루즈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 7월 이후 출발 희망자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꼭 가셔야 하는 이유 9가지 ★
1. 북유럽 7개국 완전입주 일정
2. 크루즈여행과 육지여행의 절묘한 배합
3. 발틱 운항중인 크루즈중에 최대,최신 선박
4. 유류할증료,크루즈팁,전일정기항지요금 포함
5. 모스크바 관광 포함
6. 일체 추가 요금 없음
7. 거품을 뺀 착한 가격
8. 전일정 크루즈 전문 가이드 동행
9. 크루즈 경험 13년의 오페레이션

요금 : 1인당 **659만원** 부터~(한시이도 캐빈 기준) 캐빈업그레이드 희망자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 포 함 : 왕복항공료,크루즈비용,기항지 관광비용, 코펜하겐1박2일 소요비용, 모스크바 1박2일 소요비용, 모든세금,유류할증료,1억원 여행자보험,크루즈팁,공동경비
• 불포함 : 없음

크루즈 여행지 : 7개국
러시아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웨덴 : 스톡홀롬
덴마크 : 코펜하겐
핀란드 : 헬싱키
에스토니아 : 탈린
독일 : 베를린
노르웨이 : 오슬로

주관 : Cruise CCK
크루즈 승객 송출1위 !!!
(북유럽,지중해,발칸,남미,미서부)



크루즈 선박
Princess 소속 Regal 호
142,000톤 / 2014년 건조
승객3,560명 / 승무원 1,346명
(북유럽 항해 크루즈 중에 최대,최신 크루즈이용)

CCK 크루즈씨씨케이(주) www.크루즈여행.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길 26 강남포르테빌딩 2층
Fax. 02-565-0628 E-mail : cruisecck@gmail.com
T. 1599-0628

미주본사 ClubUSA
4311 Wilshire Bl #530 L.A. CA 90010
T. 323-933-2073 F. 323-933-0910